



그림 2-6.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내 자원분포도

‘지역’의 범위 인식과 지역사회 협력내용에 대한 해당 교사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, 농업기술 센터와 연계성 약하고, 주변에서 지원 가능한 단체 및 기관 정보 부족, 실질적 활용성도 약하였다. 기관단체 네트워크보다는 개인의 자원, 정보력, 개인의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태였다.

어디까지를 지역사회로 인식하는가에 하는 지역사회 범위에 대해서는, DS, MZ, SR, 중학교 교사는 행정구역(○○시 또는 ◇◇구)로 생각한다고 답하였고, CY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까지가 지역사회라고 하였다. SR 중학교 교사도 학부모를 지역사회 범위라고 하였다. 이는 지역사회 범주에 대한 물리적 공간 개념보다는 관계적 개념에 의한 판단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지역사회에 기대하는 지원사항은 ① 작물재배기술,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교사 연수 ② 청소년 가정을 포함한 가족상담, 가족캠프 프로그램 개발운영 ③ 청소년 진로 및 직업 탐구를 위한 ‘직업훈련(예: 일-학습 병행제도)’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④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였다. 이 요구에 대한 확인과 실현 가능성을 설문조사에 ‘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원 요구’ 문항으로 반영하여 조사하였다.

학교텃밭 활동을 통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담당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작물재배기술, 텃밭 관리부담, 활용 프로그램 부족과 교구 등 활용방법이었다. 같은 작물재배 과정도 프로그램을 달리하거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이 달라지는 점에 관심이 많고 교사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 이와 같은 내용은 설문조사에 ‘텃밭활동 참여계기, 어려운 점, 학생과 교사 변화, 교사 연수 참여의사 및 프로그램 요구’ 문항 등으로 반영하였다.

## 마. 학교텃밭에 대한 인식

조사대상의 텃밭 또는 농업체험 경험을 확인한 결과 교사는 67.3%, 학부모는 85.6%, 주민은 54.1%, 기관 및 단체 종사자는 74.6%가 텃밭활동을 한 경험이 아직 없는 상태로, 그 비율이 높았다. 텃밭에 대한 접근성 또는 인지도는, 학생들의 경우 72.8%(모른다 27.2%)로 높고, 학부모 등 성인의 인지도는 학생보다는 높았으나,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종사자는 모른다가 21.8%로 다른 집단보다 텃밭 인지도가 낮았다.

가족과 함께 텃밭활동을 할 것인가 또는 텃밭이 제공되면 참여하겠는가?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겠는가?에 대해서는 꼭 참여하겠다는 참여의지가 학생(24.2%)보다는 학부모(45.1%)의 참여의지가 높았고, 주민의 참여의지(71.1%)가 매우 높음.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의 프로그램 제공 협력 의지(95.2%)도 높았음. 기관단체도 강한 의지(55.6%)는 약하였으나,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9.3%로 참여의사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.

텃밭 활동을 통한 변화에 학생은 ‘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 > 신체활동이 늘고 건강